중소벤처기업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즉시

중소벤처기업부는「모두의 창업 프로젝트」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.

1. 보도 개요

이데일리 「'기술임치' 모두의창업 대책이라더니 … 알고보니 기존 사업 재포장」제하의 기사에서 중기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이 기존 제도를 다시 안내한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.

2.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○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아이디어 임치는 최초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임치는 수수료의 1/3을 감면하고 있어,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기술임치 1년 무료 지원은 새로운 지원방안입니다.

* 아이디어 임치 : 사업계획서,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구상 및 아이디어
기술임치 : 생산·제조방법, 소스코드,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업이 보유한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기술자료

○ 앞으로「모두의 창업 프로젝트」참여자들의 아이디어는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로 발전할 것이고, 이에 대한 기술임치를 지원함으로써 추후 참여자들의 기술이 법적분쟁 발생시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○ 아울러,「모두의 창업 프로젝트」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으로, 아이디어 도용 방지·법률 대응 등 적극적 예방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실	책임자	과 장	김성훈 (044-204-7780)
	기술보호과	담당자	사무관	김혜지 (044-204-7782)